

제 2113 호 | 2022년 9월 18일

# 새소망교회

2022년 표어: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창1:28)

임목사: 안인권  
부목사: 안지웅  
교역목사: 안지영  
교역목사: 송진영  
진도사: 송민준  
진도사: 김사무엘  
진도사: 최완희  
진도사: 황민정

newhope church



# 예배 순서

제 2113 호

9월 18일 2022년

집례 : 안지웅 목사 (1부)  
안인권 목사 (2부)  
Rev. Janice Song (3부)

\* 찬 송 ----- 고개들어 ----- 다같이  
Precessional Hymn Congregation

\* 신앙고백 ----- 사도신경 ----- 다같이  
Confession of Faith Congregation

기 도 ----- 합심기도 ----- 다같이  
Prayer Congregation

\* 봉 헌 ----- 다같이  
Offering Congregation

봉헌기도 ----- 집례자  
Offering Prayer Presider

성 경 ----- 1부: 요 13:1-10 ----- 집례자  
Scripture 2부: 마 24:37-41 Presider  
3부: John 6:1-14

설 교 ----- 1부: 무엇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 안지웅 목사 (1부)  
Sermon 2부: 자기 함정(정반대)③ ----- 안인권 목사 (2부)  
3부: The Seven Signs: Rev. Janice Song (3부)  
Jesus Already Had In Mind

광 고 ----- 집례자  
Announcement Presider

\* 찬 송 ----- 하나님의 나팔소리 (168장) ----- 다같이  
Hymn Congregation

\* 축 도 ----- 안지웅 목사 (1부)  
Benediction 안인권 목사 (2부)  
Rev. Janice Song (3부)

\*헌금순서는 개별적으로 좌석 통로 입구의 헌금함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는 일어서 주십시오.

## 예배성공 · 기도승리 · 말씀순중 · 복음증거

목표 : ① 천배 부흥과 복의 통로가 되자  
② 기도자 7000명  
③ 전도자 2000명

4대 명령 : 예배성공, 기도승리, 말씀순중, 복음증거  
3대 사랑 : 하나님사랑, 영혼사랑, 교회사랑  
3대 기준 : 하나님영광, 교회유익, 성도축복  
3대 의무 : 전도, 봉사, 교육  
3대 축복 : 주일, 주의 것, 주의 중

실천사항 :

- ◎ 매일증거
- ◎ 매일기도
- ◎ 매일순중
- ① 응답(기도)의 통로
- ② 기쁨(성령)의 통로
- ③ 영광(감사)의 통로
- ④ 축복(순종)의 통로
- ⑤ 생명(희생)의 통로

새소망 성도의 확신 : 구원의 확신, 축복의 확신, 승리의 확신  
새소망 성도의 자세 : 긍정적, 적극적, 도전적  
새소망 성도의 정신 : 포용력, 결단력, 인내력

# 지난주 설교 요약

## 자기 함정(모순)② (엡4:13-15)

그리스도의 복음과 다른 복음 - 갈라디아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받아들여 기독교 신앙의 변질이 우려되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에게 보낸 강한 어조의 서신이다. 심지어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으라고 강하게 책망한다. 이신칭의 교리에 율법주의를 가미시킨 변질된 이단 교리가 침투한 갈라디아 교회에 긴급히 보낸 서신이다. 다른 복음도 문제가 되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면서도 삶은 그렇지 않다면 다른 복음을 믿는 것과 같은 것이다.

아는 것과 믿는 것 -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은 기독교 교리에 동의하는 사람이다. 동의하지 않고는 교회에 참석 할리가 없다. 타종교 역시 마찬가지다. 그 종교의 교리에 동의하기 때문에 참석하는 것이다. 기독교 구원은 교리에 동의하는 것으로 구원이 가능하지 않다. 예수를 믿어야 한다. 단순한 시인과 동의가 아닌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예수를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해야 하는 것이다.

마음에 주로 믿고 입으로 주로 시인하여 -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롬10:10) 이 말씀에 의하면 구원받는 것이 전혀 어렵지 않다. 입으로 시인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로마서의 시대적 배경은 기독교 핍박이 극에 달했던 로마 시대이다. 황제 앞에서 누가 주인지 고백해야 하는 것이다. 누구를 주로 고백하느냐에 따라 생사가 달라지는 상황에서 고백하는 것을 말한다.

죄인과 의인 - 천국은 회개하여 죄 사함 받은 죄인이 가는 곳이며 지옥은 회개하지 않은 죄인이 가는 곳이다. 구원이 필요한 인간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구원의 교리를 배우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 입으로는 죄인임을 시인하지만 실제 행동에도 그것이 반영되느냐 하는 것이다. 입으로는 죄인이지만 행동으로는 전혀 죄인이 아닌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죄인은 억울할 수 없고 부당할 수 없고 대접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이다.

종이나 주인이나 - 구원 받은 자는 예수를 주로 시인한 자이다. 예수가 주인이며 나는 종이다.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모르는 것이 있었다. 종은 내 것이 없고 내 맘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모르고 내 것처럼 내 맘대로 했다. 말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지만 행동으로는 내가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다. 형식적으로는 예수님이 주인이고 실체는 내가 주인으로 사는 것이다. 그러나 누구도 주인이 아니다.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의 생사를 결정하신다.

재림과 준비 - 재림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예수 재림을 고백한다. 재림을 믿고 고백한다면 준비 상태는 어떤가 재림을 믿는다면 재림이 없는 것처럼 살 수 없을 것이다. 재림이 없는 것처럼 산다면 재림을 믿지 않는 것이다. 재림을 믿지 않으면 구원도 믿지 않는 것이며 천국도 믿지 않는 것이다. 분명한 사실이 있다. 재림과 심판은 하나님의 결정이다. 인간이 부인할 수도 변경할 수도 취소할 수도 연기할 수도 없다는 사실이다.

지옥과 전도 - 천국을 믿으면 지옥도 믿어야 한다.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이다. 내 형제 내 부모 내 동족이 지옥 가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지옥 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면 왜 전도하지 않는가 전도하지 않는다면 지옥가는 것을 원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지 않은가 전도하지 않는 이유는 둘 중에 하나다. 자신이 믿지 않든지 자신이 정말 악한 사람이든지 지옥가는 것을 방관하는 것은 살인 교사와 같고 자살 방조와 같다.

멸망하는 자의 피 값 - 성벽 위의 파숫꾼이 적의 침략을 보고 나팔을 부느냐 아니냐에 따라 파숫꾼의 책임을 묻는 장면이 에스겔 33장에 나온다. 악의 길로 향하는 자들을 돌이키지 않으면 그 피 값을 파숫꾼에게 찾겠다는 경고도 강조하신다.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세움을 받은 파숫꾼들이다. 정신 차려 적의 공격을 파악하고 잠든 자들을 깨우고 멸망의 위험을 알려야 한다. 십자가 희생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모든 영혼을 위한 것이다.

인생의 필기 시험과 실기 시험 - 인생은 필기 시험으로 끝나지 않는다. 만드시 실기 시험이 있다. 믿음도 행치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행하는 믿음이 산 믿음이다. 구원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 이어야 한다. '자녀들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요일3:18) 아브라함이 입으로만 믿은 것이 아니라 이삭을 바치는 믿음으로 행함으로 증명한 것이다. 노아가 입으로만 믿은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했다.

## 교회 소식

- ◎ 갈멜산 기도성회: 9월 29일(목)-10월 1일(토) 저녁 8시  
영적무장을 위한 기도성회로 모입니다.
- ◎ 구역모임, 성가대, 중창단, 주일친교가 10월 첫주부터 재개됩니다.
- ◎ 성가대 연습이 9월 25일(주일) 10:30 예배후 시작됩니다.
- ◎ 2023년 에콰도르 단기선교 신청을 받습니다.  
2023년 1월 16일(월)-1월 21일(토) / 문의: 송진영목사
- ◎ 새벽예배 중보기도팀:  
(월)남여선교회 (화)예배팀과 찬양대 (수)금요찬양팀, 영어권찬양팀, 학생부찬양팀  
(목)교육부서 (금)청년부
- ◎ 국가와 지도자를 위한 기도가 절실한 때입니다. 고통받는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 ◎ 토요일(이번주) 중보기도 담당: 감사①구역

### <9월 행사>

1. 동남아시아 차세대 지도자 서밋 (SE Asia Next-Gen Leaders Summit) (안지영목사):  
9월 12일(월)-9월 21일(수)
2. 갈멜산 기도성회: 9월 29일(목)-10월 1일(토) 오후 8시
3. KAFHI 20주년 선교 포럼: 10월 5일(수)-10월 7일(금) (장소: 벨엘교회)

### <새소망교회 Youtube Channel>

- ◎ YouTube에서 "New Hope Church TV" 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 ◎ 온라인 예배: [www.newhope.us/online](http://www.newhope.us/online) 에서 예배가 실시간 방송됩니다.  
매일 새벽예배(5:30AM), 금요일예배(8:00PM), 주일예배(10:30AM, 1:30PM)

### <답임목사님 소개영상>

- ◎ YouTube에서 "C채널 방송 안인권목사" 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 노방전도 일정표

<input type="checkbox"/> 엘리콧시티 롯데	<input type="checkbox"/> 엘리콧시티 한아름	<input type="checkbox"/> 엘리콧시티 두레주르	<input type="checkbox"/> 케이튼스빌 한아름
첫째주: 믿음 ① 구역 믿음 ② 구역	첫째주: 충성 ① 구역 충성 ② 구역	첫째주: 사랑 ① 구역 사랑 ② 구역	첫째주: 은혜 ① 구역 은혜 ② 구역
셋째주: 감사 ① 구역 기쁨구역	셋째주: 능력 ① 구역 능력 ② 구역	셋째주: 승리 ① 구역 승리 ② 구역	셋째주: 화평 ① 구역 화평 ② 구역

## 이번주 구역 예배 장소

기쁨 구역:    가정예배	믿음 ① 구역: 가정예배	감사 ① 구역: 가정예배
	믿음 ② 구역: 가정예배	감사 ② 구역: 가정예배
은혜 ① 구역: 가정예배	화평 ① 구역: 가정예배	사랑 ① 구역: 가정예배
은혜 ② 구역: 가정예배	화평 ② 구역: 가정예배	사랑 ② 구역: 가정예배
충성 ① 구역: 가정예배	능력 ① 구역: 가정예배	승리 ① 구역: 가정예배
충성 ② 구역: 가정예배	능력 ② 구역: 가정예배	승리 ② 구역: 가정예배

## 예배와 모임 시간

### 주 일 예 배

- |                  |  |   |
|------------------|--|---|
| 1부: 오전 8:00      | <input type="checkbox"/> 새벽예배: 오전 5:30 | <input type="checkbox"/> 청년부 제자훈련: TBA          |
| 2부: 오전 10:30     | <input type="checkbox"/> 금요찬양: 오후 8:00 | <input type="checkbox"/> 학생부예배: 오후 1:30 (토)     |
| 3부: 오후 1:30 (영어) | <input type="checkbox"/> 구역예배: 오후 7:30 | <input type="checkbox"/> 주 일 학 교: 오전 10:30 (주일) |

# 목회 칼럼

## 생각을 뒤집어라

"우리의 상식은 세상을 의식하는 데는 훌륭하지만 세상을 이해하는 데는 그렇지 않다" <상식의 배반>의 저자 던컨 와츠의 말이다. 상식에 비추어 사람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는지에 대해 의문의 여지없이 나도 비슷한 생각을 하게 되지만, 왜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며, 어떤 근거로 그런 생각과 행동을 하는지를 이해하는 데에는 많은 맹점이 있다. 늘 그랬듯이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생각의 습관을 따르고 있는 것이다.

습관적 상식을 한 번쯤 뒤집어보면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너무 많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역발상은 '옛발상'에 대한 반론이자 일종의 '폐기학습 unlearning'이기도 하다. 옛발상은 옛날 생각, 흘러간 생각을 붙잡고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생각일 뿐만 아니라, 의식적 비판 없이 무조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습관적인 생각이다. 옛발상에 대한 역발상은 사람들이 상식적인 타성에 갇혀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는 기존의 생각에 전혀 다른 시각을 제시하는 것이다.

가령 성공체험이 긍정적인 영향도 있지만 현재나 미래의 성공의 방해가 될 수도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이다. 순기능 뿐만 아니라 역기능도 전제해야 하는 것이다. 상반된 양상이 존재하는 것이다. 가장 위험한 사람이 책을 딱 한 권만 읽은 사람이다. 하나 밖에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아는 것 하나를 전체로 알고 있는 착각에 빠져 있는 것이다. 내가 직면한 문제를 이미 해결한 사람에게 배우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조심할 것이 있다. 그 배움이 다른 발상을 방해하는 방해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좋아하는 일은 물론 싫어하는 일도 도전할 수 있어야 한다. 역발상은 일종의 '불장난'이다. 불장난은 '불가능'에서 '불'자를 제거하고 가능하다고 생각하며, 불만족을 만족으로, 불안을 편안으로, 불쾌함을 쾌활함으로, 부조화 속에서 조화를 추구하고 발견하는 사고방식이다. 역발상은 불가능해 보이는 한계나 문제, 그리고 현실적 제약조건이 있어서 안 된다고 생각하는 발상에 브레이크를 거는 발상이다.

심한 비바람에 애써 키운 사과가 모두 떨어져 절망하는 농부가 있는가 하면, 떨어진 사과를 역발상 마케팅으로 판매하는 농부도 있다. 예컨대 떨어진 사과를 팔면서 "이사과를 먹으면 수능에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고 마케팅하는 농부 입장에서 보면 떨어진 사과는 절망의 사과가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의 문을 열어주는 희망의 사과로 변하게 된다. 사과가 떨어진 절망적인 현실만 바라보면 지난 1년 동안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시간적으로 애쓴 모든 노력에 대해 안타까움만 더할 뿐이다.

그러나 떨어진 것을 현실로 인정하고 이 사과를 다른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기 시작하면 놀랍게도 다른 가능성이 보이는 것이다. 같은 상황에서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이 생각을 바꾸는 것이다. 상황과 환경적 조건을 바꿀 수는 없다. 그러나 생각은 바꿀 수 있다. 보이는 현실을 바꿀 수 있다면 문제될 것이 없을 것이다. 문제는 눈에 보이는 현실을 내맘대로 바꿀 수 없다는 데 있다. 절망과 불행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상황과 환경을 원망하며 세월을 낭비하는 것이다.

설령 막다른 골목에 몰렸을지라도 새로운 가능성의 돌파구가 가능한 이유가 발상을 바꾸는 것이다. 발상의 전환에 따라 상황과 환경이 바뀐 것과 같은 결과가 되는 것이다. 더 이상의 대안이 없다고 포기하기 전에 지금까지 생각한 대안을 모두 백지화하고 전혀 새롭게 다른 각도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도해 보는 것이다. 주어진 문제에 대해 집요하게 파고들기 전, 혹시 지금 파고드는 방식에 내가 습관적으로 생각한 과거의 선입견과 편견이 개입되지 않았는지 검토해보는 것이다.

발상의 전환은 나도 모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가정, 사물이나 현상들을 의심해보고 아예 제거해버리는 과감한 시도에서 비롯된다. 나의 기존 사고방식을 거부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진리처럼 의심 없이 받아들이던 속담이나 명언에 대해서도 '과연 그런가?'라고 의문을 던져보는 것이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다. 과연 실패한 사람은 다 성공했는가? 아니다. 지난 번 실패에서 실패의 원인을 찾아내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실패는 실패의 어머니일 뿐이다.

신앙생활에서는 특히 중요하다. 분명히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이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셨다. 그러나 우리는 불가능이 있다고 생각한다. 문제의 불가능성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생각 속의 불가능이 문제인 것이다. 가능하다는 말씀을 내 생각이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내 생각을 뒤집어야 하는 것이다. 내 인생이 왜 달라지지 않는가? 나는 왜 비전없는 삶을 살고 있는가? 결코 상황과 환경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내 생각이 문제인 것이다. 발상의 전환은 신앙생활에서 필수적인 문제다. 내 생각을 포기해야만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로서 내 생각을 바꾸고, 내 생각이 바뀌면 내 인생이 바뀌는 것이다. 나이들어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이 생각이 바뀌기 힘든 이유는 기존의 생각이 너무 강하게 고착되어 있기 때문이다. 몇십년 동안 굳어버린 생각이 쉽게 무너지지 않는 것이다. 상상하기 힘든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나서야 비로서 자기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인정하게 된다. 그리고 나서 생각을 바꾸게 된다. 생각이 바뀌면 우주가 바뀌는 것이다. 생각을 뒤집으면 문제가 뒤집어진다.